

## 미국 내 헬스케어 산업동향

- 2022. 01. 31., KIC 실리콘밸리 이슈미 ([yoomi@nipa.kr](mailto:yoomi@nipa.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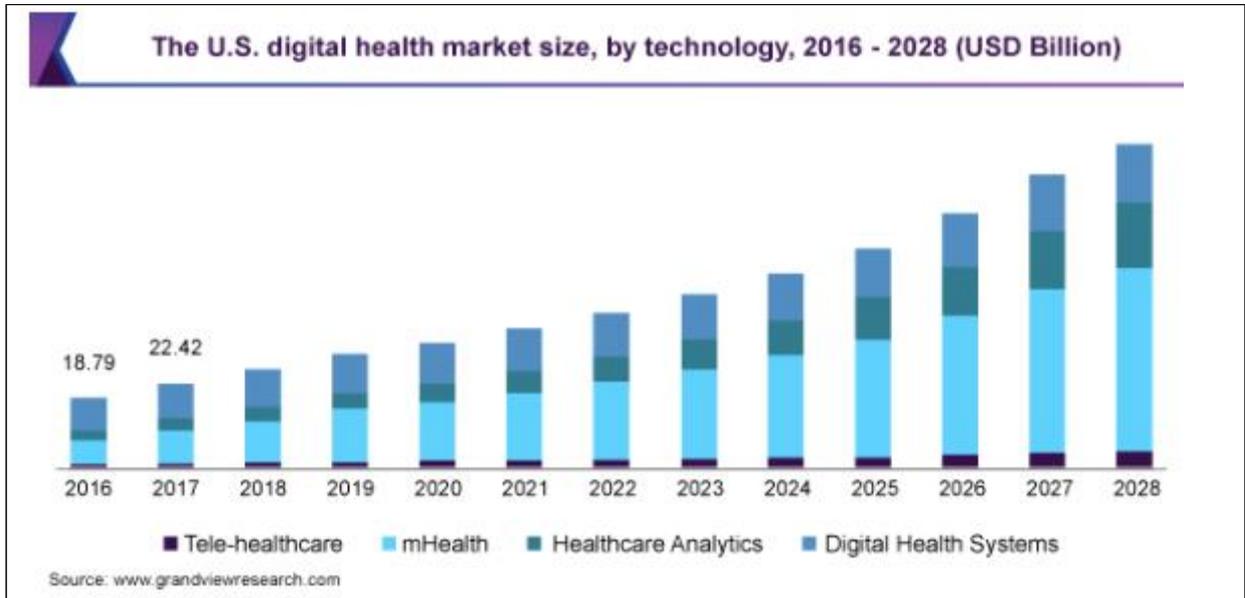
### □ 개요

- 전 세계적으로 COVID-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을 극복·통제하려는 노력은 첨단 제약·바이오 기술에 힘입어 백신·치료제 개발 단축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고 있음
  -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지난 2020년 8조4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이 오는 2030년 14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3조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2030년 11조5천억 달러로 낮출 것으로 예상함
- COVID-19 유행 이후 등장한 스마트검역시스템, 특별입국자 자가 진단앱, 진단장비, 비대면 진료 및 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 등은 디지털이 대면 방식의 정통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킴
- CES 2022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Tech Trends to Watch’에서 올해 주목해야할 기술은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메타버스, 진화된 인공지능 이라고 밝힘
- 특히 올해 CES 사상 최초로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Abbott)의 최고 경영자인 Robert B. Ford가 초청받아 키노트 스피치 무대에 올라 헬스케어 분야 기술 혁명, 대중들의 Self Health Check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소개함으로써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산업이 CES 전시회의 주연이 되었다고 평가함
  - 애보트는 본 행사에서 자사 신제품인 ‘링고(Lingo)’를 공개함. 링고는 애보트의 대표 혈당 관리 기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Freestyle Libre)’의 확장판으로,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중, 에너지, 수면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선수에게도 유용하다고 밝힘

## □ 미국 디지털 헬스 시장규모

- 전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20년 96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5.1%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술별로는 모바일 헬스,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헬스 시스템, 텔레 헬스케어 순으로 차지함

< 기술별 미국 내 디지털 헬스 시장규모 (출처: grand view research) >



-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높은 만성질환 환자의 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필요성의 증가, 디지털 건강 기술의 도입으로 환자의 기술 활용이 활발해짐으로써 해당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 됨
  - 2018년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95%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64%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며 2025년에는 모바일 가입자 수가 5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22년 헬스케어 3가지 주요 트렌드

-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2년 헬스케어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혁신에 초점을 맞춘 환경·지속가능성·지배구조(ESG) 전략, 바이오테크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이터 분석 및 소비자 관련 원격의료 및 디지털 진료 솔루션을 선정함

- (ESG 전략)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환경·지속가능성·지배구조(Environment, Substantiality, Governance, ESG) 모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치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데이터 분석) 유전체와 질병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명과학 관련 기업들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투약에 따른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원격의료 및 디지털 진료 솔루션) 특히 급성 및 만성 질병의 관리 및 치료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

## □ 시사점

- 디지털 헬스케어는 진단·치료 위주의 단순 헬스케어를 넘어 ICT 기술과 융합해 발전하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영역으로 산업 범위가 확대되어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
- 2000년대엔 헬스케어가 의료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디지털이 산업의 중축이 되고 있으며 IT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기술과 헬스케어가 접목될 경우, 더 효율적인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
- 디지털 헬스는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듯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증가와 재정낭비, 지나친 의료화 및 과학적 근거의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있음

### [참고자료]

- Digital Health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By Technology [\[링크\]](#)
- The Future of Health: 3 Healthcare Trends For 2022 [\[링크\]](#)
- Abbott announces Future of Biowearables at Consumer Electronics Show [\[링크\]](#)
- CES Topics [\[링크\]](#)